

한국법제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 공동학술대회



☞ **최경호**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
 법제조사평가팀 연구위원
 ✉ kchoi@klri.re.kr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7월 22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및 제21대 국회 개원 기념 학술행사의 일환으로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의 방법과 사례'를 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좋은 입법을 위한 수단으로 입법평가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현행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입법평가이론의 발전과 실제 적용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유관기관과 학술대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최근 입법평가 방법론으로 주목 받고 있는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능해보고 연구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가 마련되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 국회입법조사처 김하중 처장, 법제처 김형연 처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학술대회는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의 ▲구체적 방법론 ▲구체적 사례에서의 적용과 활용방안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은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로 공동학술행사의 시작을 알리고, 김형연 법제처장의 환영사와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의 기조발표가 이어지며 이번 공동학술행사의 의의와 내용, 성과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김계홍 원장은 “급변하는 환경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입법수요에 대응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고도화된 입법 분석과 법제지원이 필수적이다”며 “이를 위해 한국법제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는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초청하여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라는 주제로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로 진행된 제1부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사전적 입법영향분석 방법'을 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 유재국 법무담당관이 발표를 하고 이어 국회입법조사처 정준화 입법조사관이 '데이터 기반의 사후적 입법영향분석 방법'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제1부의 발제가 모두 끝난 후 차현숙 본부장(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본부), 박원호 교수(서울대 정치학과), 이수아 예산정책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이 토론을 맡았다.

오명호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 사회로 진행된 제2부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김윤정 팀장이 '데이터에 기반한 전자상거래법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최유경 팀장이 '데이터에 기반한 유통산업발전법 입법평가'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제2부의 발제가 모두 끝난 후 권성훈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김현수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윤철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토론을 맡았다.

입법학 발전에 가장 기여해온 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는 공동주최로 입법평가 방법과 구체적 적용에 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입법기관 및 입법학에 관심을 가진 이들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었다. 학술행사 주제를 입법평가 방법론으로 주목 받고 있는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로 하고, 여러 관점에서 조명함으로써 입법평가제도의 이론적 심화와 제도화 논의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입법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논리를 함께 마련하는 자리였다.

금번 학술행사는 개원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그 동안 우리 연구원의 입법평가 사업의 성과를 홍보할 수 있었고, 입법평가연구사업의 의미 있는 성과로서 입법학 연구 활성화를 통해 연구원 사업 및 활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